

교원양성체제 개편과 경제지리학: 경제지리교육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제언

정성훈(강원대학교)

이 연구는 정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관한 숙의단 활동을 요약하고, 이에 기초하여 경제지리교육의 사회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원양성체제 개편과정은 사범대학의 문제만은 아니며, 우리나라 지리학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책형성 과정이다.

지리학계는 이에 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내 다가 올 변화에 대한 대응력도 미흡하다. 이는 경제지리학계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경제지리학의 발전은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보다 사회친화적인 교육방법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경제지리학자들의 진로와 직업 교육에 참여, 산학협력 교육(특히 포용형 교육), 일자리와 산업이 연계된 교과목 개설 또는 기존 교과목과 연계방안, 균형발전 교육 전담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